

철학사입문코스Ⅳ

제14강 토마스 홉스와 사회계약론

제14강 1교시

◆ 토마스 홉스와 사회계약론1

근대 정치철학의 전범(典範)을 창출해낸 인물은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이다. 홉스는 일관된 방법론과 철학적 기초 위에 정치사상을 구축함으로써 근대 정치사상의 출발점을 형성한다.

▶ 참고자료

홉스 [Hobbes, Thomas, 1588.4.5~ 1679.12.4]



국적 영국

활동분야 철학

출생지 맘즈베리

주요저서 《인간의 상태》 《선언》 (1651)

영국의 철학자. ,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은 계약으로써 국가를 만들어 ‘자연권(自然權)’ , 국가를 대표하는 의지에 그것을 양도하여 복종해야 한다고 보았다. (專制君主制)

홉스가 중요한 이유→ 이전까지의 정치사상은 오늘날의 이론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 인물에 대한 어떤 이야기였으나 홉스가 사회계약론이라는 근대정치철학의 패러다임을 만든 것이다.

▲ 홉스 정치사상의 철학적 기초

홉스는 다음과 같은 철학적 기초 위에서 자신의 정치사상을 전개했다.

1) 유물론(materialism)

홉스는 데카르트에 반대해서 오직 물체(corpus) 위에 그의 철학을 건립하고자 했다. 이 점에서 그는 기계론을 철학 전체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물체와 운동’이 모든 논의의 기초이다.

→홉스는 물리계에서의 ‘코나투스’(점이나 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운동)와 마음에서의 ‘의지/의도(endeavour)’를 가지고서 모든 운동을 설명하려 했다.(스피노자의 코나투스 conatus→)

endeavour

→ 홉스에게 몸body | 차원을 떠난 별개의 차원은 없기 때문

2) 유명론(nominalism)

홉스는 근대 철학자들 중 누구보다도 언어의 문제에 민감했다. 그 이유들 중 하나는 자연상태로부터 국가 구성으로 나아가려면 언어가 필수적으로 요청되기 때문이다. (계약을 하고 소통을 하고 법을 만들기 위해서)

반면 수사학자, 스콜라철학자, 신학자들, 정치가들은 언어 남용을 이유로 규탄 받는다.

3) 합리주의의 영향

홉스는 유클레이데스 기하학, 갈릴레오 물리학, 데카르트의 기계론 등의 영향을 받아 합리주의적 성격을 담론을 펼쳤다. 이 점에서 기존의 정치서들과는 달리 이론서의 성격이 뚜렷하다.

▲자연상태와 자연권

홉스는 자연상태를 설정하고 그로부터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가 구성되는, 근대 정치철학의 기본 패러다임을 구성했다.

자연상태(natural state)는 이론적 상황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인간은 인간에 대해 늑대.”

‘자연권(natural right)’ 만이 지배하는 세계. 본성의 문제라기보다는 특정한 상태. 고립주의에는 반대. 인간의 합리성 강조.

⇒ 흔히 홉스가 성악설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홉스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문화나 국가, 시민사회를 형성하지 않으면 만인이 만인에 대해 투쟁하는 세계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지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1)홉스는 인간을 고립적 존재로 보지 않았다. (2)홉스는 인간을 합리적 존재로 보았다.

▶ 참고자료

수인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공범 A와 B가 경찰에 붙잡혀 각각 격리된 상황에서 심문을 받는데, 두 사람 모두 두 가지의 전략밖에 없다. 고백하거나 아니면 함구하여 고백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고백하면 각각 10년형을 받게 되고, 만약 A는 고백하고 B는 함구하는 경우 A는 특전을 받아 무죄로 풀려나고 B는 30년형을 받게 되며, 반대로 B가 고백하고 A가 함구하면 B는 무죄, A는 30년형을 받는다. 또 A와 B가 모두 끝까지 함구하면 3일씩 구류를 살고 무죄로 풀려난다고 할 때, A와 B가 각각 자기 개인의 형량만을 생각하면 다 고백하고 10년형을 받는 결과가 된다.

왜냐하면 A는 B가 고백할지 함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야 한다. B가 고백을 한다면 A는 자기도 고백하면 10년이고, 고백하지 않으면 30년형을 받게 되니 고백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또 B가 함구를 한다면 A는 자기가 고백하면 당장 무죄로 풀리나, 함구하면 3일은 고생하여야 한다. 따라서 A가 자기 이득만 생각한다면 B가 함구를 하더라도 고백하여야 한다는 결론이다. B도 같은 이유로 자기 이득만을 위하여서는 A가 고백하든 함구하든 고백하여야 한다는 결론이다. 결국 A와 B가 자기 이득만을 위하여 의사결정을 한다면 다 같이 고백하게 되어 각기 10년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A와 B 모두를 위해서는 같이 함구하여 3일씩 구류를 받고 무죄로 나오는 더 좋은 전략이 있으니, 이를 수인의 딜레마라고 한다. 즉, 각 개인이 자기의 이득만을 생각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 사회전체에 손실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다.

⇒ 두 죄수는 서로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 된다.

철학사입문코스Ⅳ

제14강 2교시

◆ 토마스 홉스와 사회계약론2

계약은 (1)개인의 주체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2)합리성rationality이 전제되어야 한다.

원칙주의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사람이고 현실주의자는 옳고 그름을 떠난 deal을 중시한다. 홉스는 처음으로 정치의 문제를 deal의 문제로 본 것이다.

홉스에게는 자기의 생명 보존, 평화가 최상의 가치이다.→소극적 자유 개념.

⇒ 거대한 권력의 필요를 역설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계약contract’의 개념을 통해 근대 정치철학을 정초했다. ‘예비적 계약’ 만으로는 안 되고 ‘정치적 계약’이 필요하다는 것.

→ ‘시민사회’의 구상. 다원성을 인정하면서도 평화를 위해 일원성을 요청한다.

⇒ 시민사회society, 형이상학으로 뒷받침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이 주체가 되어 계약을 맺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

→ ‘society’

자연권을 양도,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에게 몰아주기. 왕권신수설을 타파하고 통치자를 하나의 직책으로 개념화한다.

홉스에게서 계약의 주체는 ‘author’들이다.

→정치적 주체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주체 즉 소유자(possessor)이기도 함. 자본주의사회를 떠받치는 제1의 원리는 소유권에 있다.

주체들의 계약을 통해서 ‘mortal god’로서의 ‘리바이어던’이 탄생. 그러나 **절대군주제라는 한계가 있음.**

⇒ 홉스의 정치사상은 17세기 절대군주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오늘날의 입장에서 본다면 완전히 근대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논리전개 면에서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계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을 어겼을 경우 당연히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그러나 적극적으로 이론화하지는 못했다.

“공동의 권력을 세우는 유일한 길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

의 합의체(assembly)에 부여하는 일이다. 이것은 동의나 화합 이상의 것이며, 그들 모두의 참된 통일이다. 하나의 인격체 안에서 통일된 군중은 시민(civitas=commonwealth)이라 불린다. 이것이 위대한 리바이어던 또는 죽을-운명이 신의 탄생이다. 우리들이 평화를 유지하고 방어하는 것은 이 유한한 신 덕분이다. 국가란 하나의 인격체로서 다수가 상호 계약에 의해 스스로 그 인격체가 하는 행위의 주체가 되며, 그 목적은 그가 공동의 평화와 방어에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다수의 모든 힘과 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 인격체를 이끌고 있는 이가 통치자이며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 밖의 모든 사람은 그의 신민(臣民)이라 부른다.”

⇒ ‘臣民’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듯이 전통적인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한 면이 있지만 마르크스가 등장하기 이전까지의 근대정치 패러다임은 모두 홉스의 이러한 패러다임을 잇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